

K-뷰티, 세계 2위로

2025 한국 화장품 수출 — 사상 최대 114억 달러, 프랑스 다음의 수출 강국

\$11.4B

2025 수출 (사상 최대)

세계 2위

화장품 수출국

+ 11.8%

전년比 성장

202개국

수출 대상국

세 문장으로 보는 2025 K-뷰티

01

114억 달러 · 사상 최대

2025 수출 114억 달러(+11.8%) — 5년 연속 성장 끝에 세계 2위 수출국으로.

\$11.4B

02

미국이 중국을 추월

최대 시장이 중국에서 미국(22억 달러.+15%)으로 교체 — 시장 다변화의 상징.

미국 #1

0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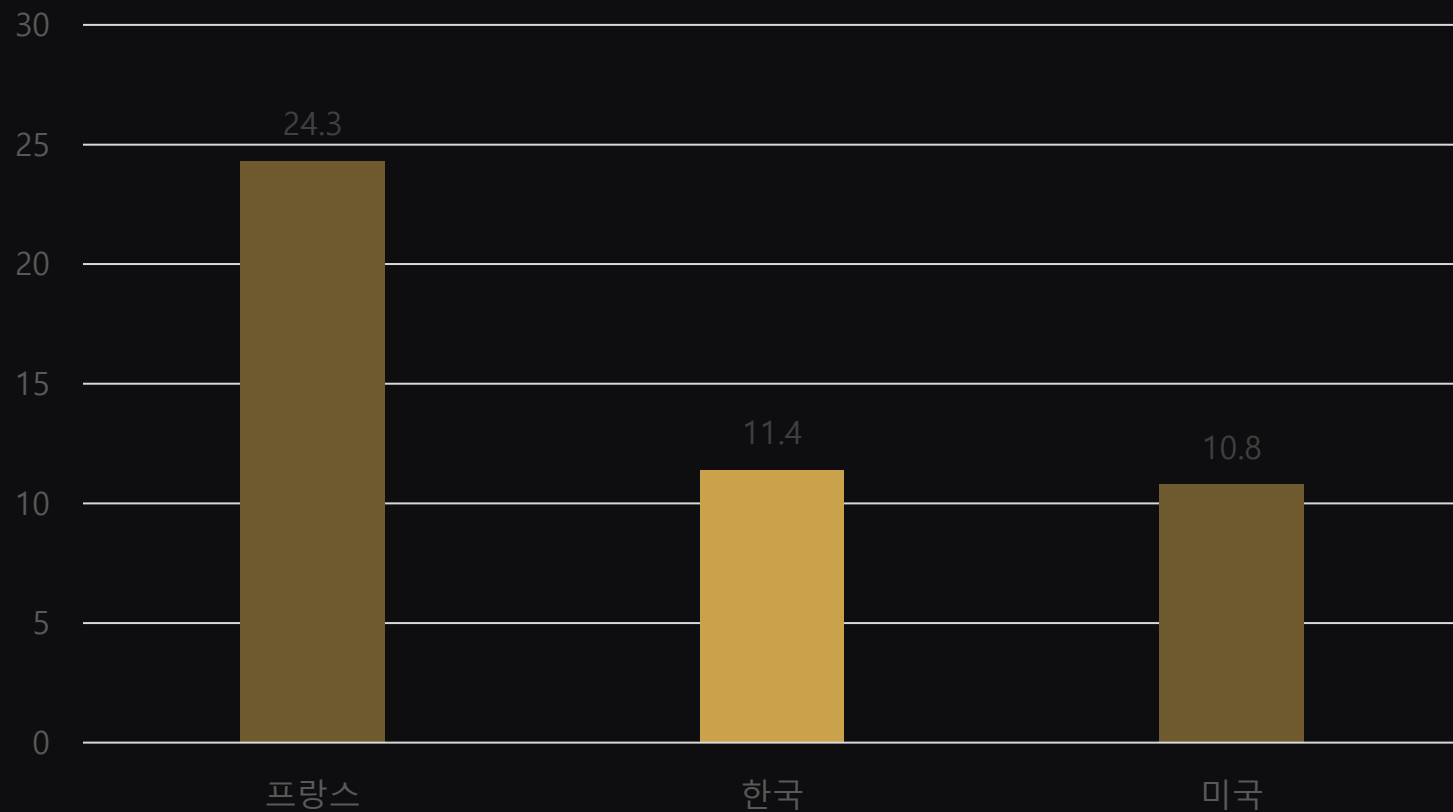
202개국으로 확장

수출 대상국 172→202개국, 폴란드·UAE 등 유럽·중동 급성장.

202개국

프랑스 다음 — 세계 2위 수출국으로

2025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 (십억 달러)



* 가운데 막대(한국)만 골드 강조 — 네이티브 막대별 색 지정(point_colors).

4→3→2위

2023→2024→2025 순위 상승

\$11.4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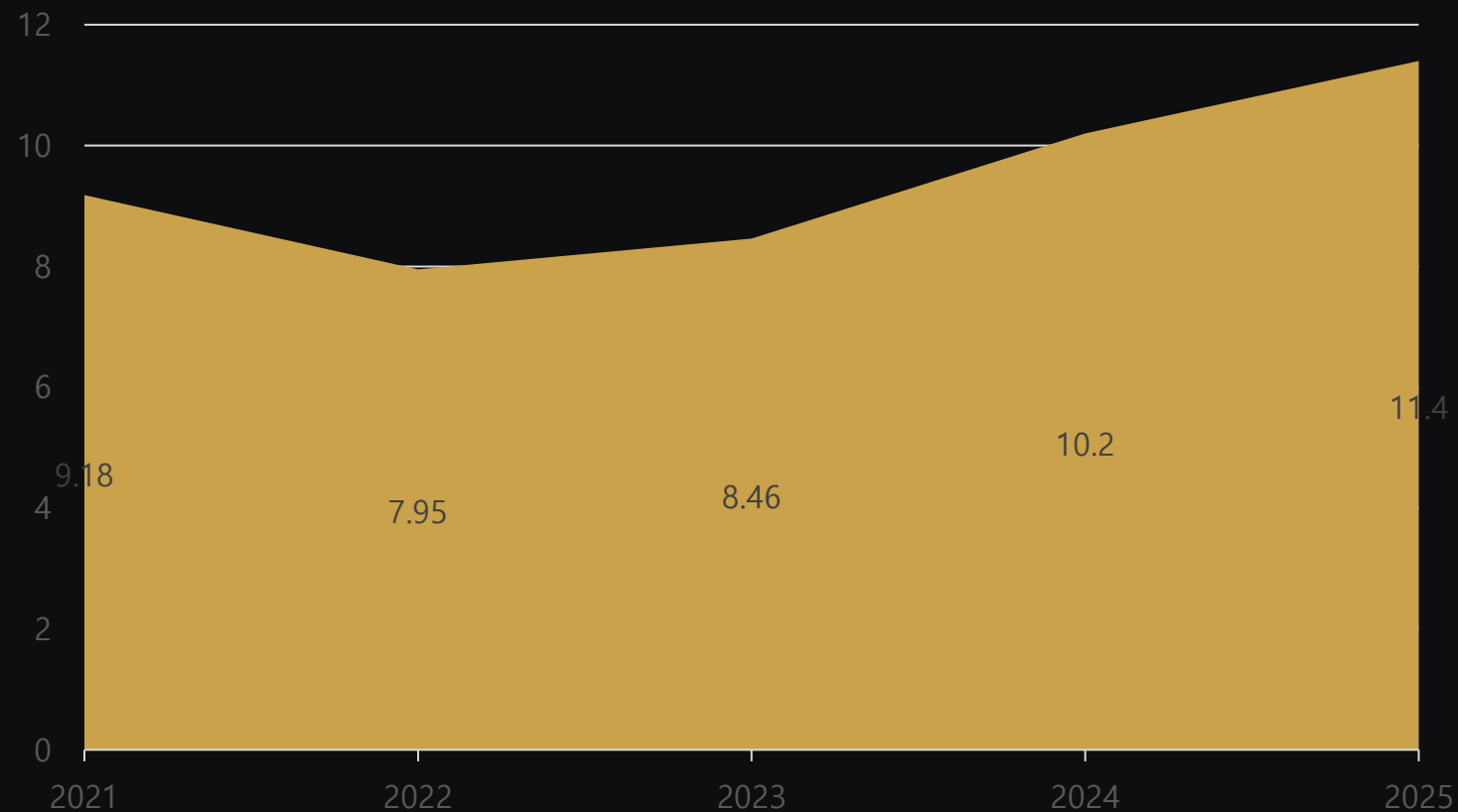
2025 수출 (프랑스 \$24.3B)

미국 추월

2025 미국(\$10.8B) 제침

5년 만에 다시 사상 최대 — 114억 달러

한국 화장품 연간 수출액 (십억 달러)



\$11.4B

2025 (사상 최대)

+ 34.6%

2022 저점 대비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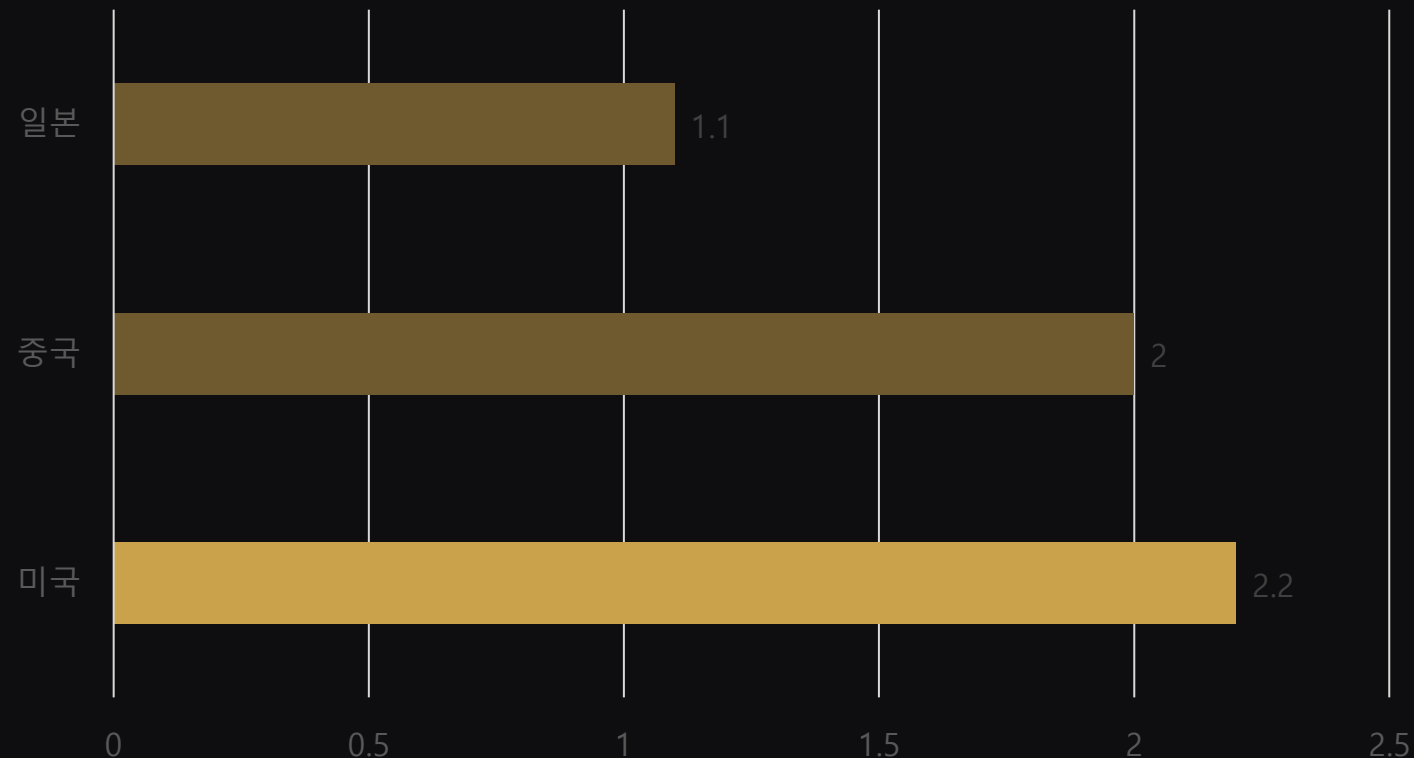
5년 연속

성장(2022 일시 조정)

* 2022 수출액은 추정(반올림). 中 봉쇄 영향으로 일시 조정 후 반등.

최대 시장이 중국에서 미국으로

2025 상위 3개 시장 수출액 (십억 달러)



미국 \$2.2B

전년比 +15% · 첫 1위 — 중국 추월

중국 \$2.0B

전년比 -19% · 2위로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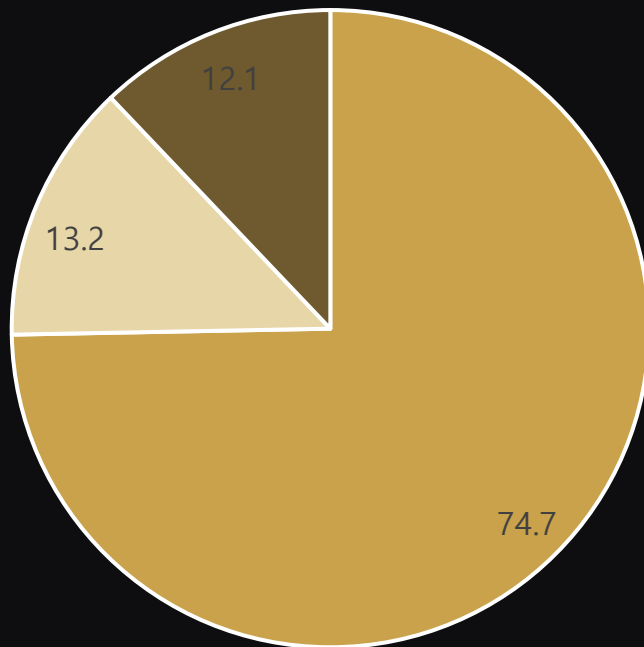
일본 \$1.1B

전년比 — · 안정적 3위

다변화 — 수출 대상국 172→202개국, 상위 10개국 비중 70.7%.

스킨케어가 4분의 3 — 기초가 견인

2025 품목별 수출 비중 (%)



■ 스킨케어 ■ 색조 ■ 기타

스킨케어 74.7%

≈ \$8.5B

색조 13.2%

≈ \$1.5B

기타 12.1%

≈ \$1.4B

* 분류 기준 주의 — 전체연도 스킨케어/색조/기타 구분(관세청 1~3분기 기초/색조/기타 세분과 상이).

차이나 리스크를 줄이다 — 시장 다변화

202개국

수출 대상국

2024 172개국에서 30개국 확대 — 전 대륙으로.

50%→24.5%

중국 비중 축소

2021 절반 이상이던 중국 비중이 2024 24.5%로 — 편중 완화.

+ 111.7%

폴란드 급등

유럽 신흥시장 폭발적 성장 — K-뷰티 저변 확대.

+ 67.2%

아랍에미리트(UAE)

중동 수요 급증 — 프리미엄 할랄 시장 진입.

부록 — 연간 수출 시계열

원자료 — 진짜 네이티브 PowerPoint 표 객체(골드 헤더).

연도	수출액 (\$B)	비고
2021	9.18	확정
2022	7.95	추정(반올림)
2023	8.46	확정
2024	10.20	확정
2025	11.40	확정

\$11.4B

2025 수출

세계 2위

수출국 순위

+ 11.8%

2025 성장률

데이터·방법

교차

2+ 출처 대조

관세청·식약처·KOTRA·Korea Herald·IBTimes 교차 확인.

플래그

추정·환산 표기

2022 수출액은 추정(반올림). 성장률 출처별 $\pm 0.5\%$ p 편차.

기준

분류 주의

품목 비중은 전체연도 스킨케어/색조/기타 — 분기 세분과 상이.

한계 — 연도·기관별 집계 시점 차이로 $\pm 0.1 \sim 0.3$ B 편차 가능. 순위는 수출액 기준(생산액 아님).

자료: 관세청·식약처 수출통계 · KOTRA · The Korea Herald · IBTimes · Korea Times (2+ 출처 교차, 기준일 2026-06-15)

— CLOSING

K-뷰티는 '유행'이 아니라 '산업'이 되었다 — 프랑스 다음, 세계 2위.

기준일

2026-06-15 · 2025 실적

자료

관세청·식약처·KOTRA·Korea Herald

면책

공개 정보 기반 분석 · 투자/구매 권유 아님